
천하제일탈공작소 X 서울남산국악당

열하일기



음성해설 대본

*참고

파란색: 해설 대사

초록색: 자막 타이핑 참고 대사

해설 (수어통역사 나오면) 수어통역사가 등장한다.

극장 안전사항 안내가 흘러나온다.

해설 <단체소개>

천하제일탈공작소는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을 만들고 있는 탈꾼들의 예술단체이다. 전통탈춤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지역의 탈, 움직임, 음악, 언어를 확장하고 현시대의 이야기와 함께 지속적인 창작활동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주요 작으로 <오셀로와 이야기>, <삼대의 판>, <가장무도> 등이 있다.

<공연소개>

‘또 다른 길을 만나다.’

『열하일기』는 조선 후기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오며 쓴 여행기로, 공연 <열하일기>는 이를 무대에서 다시 쓴 작품이다. 박지원이 길에서 경험한 것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풀어내듯이, 천하제일탈공작소는 『열하일기』를 탈춤의 형식으로 다시 풀어낸다. 여행이 길 위에서 또 다른 길을 만나는 과정이라면, 공연 <열하일기>는 탈춤의 또 다른 면을 만나는 여행이 될 것이다.

<무대설명>

무대 바닥에 푸른색의 쪽마루가 깔려있다. 무대 주변은 녹색 잔디가 감싸고 있다.

무대 뒤쪽에는 흰색 천이 넓게 드리워져있다. 그 앞에 허공에는 나무가 매달려있다. 나무에는 해, 산, 강, 사람을 나타내는 오브제가 걸려있다. 무대 중앙 허공에는 탈꾼들이 공연 중 쓰게 될 세 개의 탈이 매달려 있다.

흰 얼굴에 곱슬거리는 턱수염, 짙은 눈썹을 가진 탈은 연암1이 쓴다. 흰 얼굴에 턱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오고 휘날리는 눈썹을 가진 탈은 연암2가 쓴다. 흰 얼굴에 턱수염이 관자놀이까지 이어져있고 눈썹이 짙은 탈은 연암3이 쓴다.

<인물설명>

세 명의 탈꾼이 모두 연암 박지원을 연기한다.

이 연암들은 장면에 따라 다른 역할을 맡기도 한다.

<수어통역사>

세 명의 수어통역사가 한 탈꾼씩 말아 함께 움직이며 수어통역을 한다.

각 장의 첫머리 마다 장면의 소재가 된 열하일기의 한 구절을 수어로 전달한다.

해설 (대사 마치면) 수어통역사 퇴장한다.

해설 (악사들 등장하면) 악사들 연주자석에 앉는다.

0. 사이의 춤

해설 (연암들 무대로 올라오면) 맨 얼굴의 연암들이 무대 위로 올라온다. 수어통역사들이 함께 나와 연암들 옆에 선다. 연암들은 허리춤에 웃고름이 있는 흰색 의상 입고 검은색의 복건을 머리에 쓰고 있다.

해설 연암1이 말한다.

연암1 자네 길을 아는가?

해설 연암2가 말한다.

연암2 길? 자네는 아는가?

해설 연암3이 말한다.

연암3 (알지만 모르는 척) 길이라. (관객을 향해) 자네들은 아는가.

연암1 길은 언덕과 강 사이에 있다네.

연암2 언덕과 강이라. 그 사이에 길이 있다고?

연암3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길이 있지.

연암1 닿지도 떨어져 있지도 않은, 얇지도 깊지도 않은! 잔잔하지도 거세지도 않은 물결.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곳, 옷과 살의 사이. 사이에서 길이 생기고 물음이 생기지.

연암2 (알지만 능청스럽게) 그게 무슨 소린가?

연암3 크지도 작지도 않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흐르지도 멈추지도 않는 춤. 춤이 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춤.

연암1 아니, 그런 춤이 어딤나?

연암2 있지! 우리가 추는 춤과 춤 사이에.

연암3 우리의 음악과 음악 사이에.

연암1 너와 나 우리 사이에.

연암2 그 춤을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

연암3 좋지!

연암1 (관객을 향해)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관객 반응을 유도하며) 얼씨구!
(다시 한 번) 좋다.

♪ 음악: 배따라기 선율이 나온다.

해설 (대사 끝나면) 두 명의 수어 통역사가 퇴장하고 한 명만 남는다.

해설 (수어통역사 준비되면) 이 강은 바로 저들과 나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곳일세. 언덕이 아니면 곧 물이란 말이지. 인간의 윤리와 만물의 법칙이 물가 언덕과 같은 법. 그러므로 길이란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이'에 있는 것이네.

해설 수어통역사 퇴장한다.

해설 (수어통역사 퇴장하면) 연암들 탈을 쓴다.

해설 (춤 시작하면) 팔과 다리를 덩실덩실 흔들며 익살스럽게 움직인다.

♪ 음악: 타악, 대금, 해금, 일렉 기타, 베이스가 함께 연주된다.

해설 (일렉기타 시작되고 분위기 전환되면) 연암들 삼각 구도로 서서 탈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춤을 춘다. 절도가 있으면서도 유려한 곡선이 드러나는 활동적인 움직임이다.

해설 (연암들, 퇴장하면) 연암들, 천천히 무대 위에 멈춘다.

1. 축원의 춤

해설 (음악 끝나면) 수어통역사가 등장한다.

해설 (수어통역사 자리 잡으면)
술 한 잔 가득 부어, 문루 첫 번째 기둥에 뿌리며, 잘 다녀올 것을 빌었다. 그리고 또 한 잔을 부어 그 다음 기둥에 뿌리며 동행을 위해 빌었다. 술병을 흔들어 보니, 아직도 몇 잔 더 남아 있기에 술을 땅에 뿌리도록 했다. 말을 위한 것이다.

해설 (대사 끝나면) 수어 통역사 퇴장한다.

♪ 음악: 남창 편락 <나무도>를 연암이 부른다. 타악, 대금, 해금, 피리가 함께 연주된다.

해설 (연암3이 무대 중앙에 나오면) 연암3,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온다.

해설 (연암3,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연암3, 노래를 부른다.

해설 (연암1과 2, 무대 위로 올라오면) 연암1, 술을 따르는 시늉을 하며 움직인다. 연암2, 절을 하는 시늉을 하며 움직인다.

해설 (연암1과 3 자리 바꾸면) 연암3, 하늘로 기원하듯 손을 높이 뻗어 올린다.

해설 (연암들, 종렬로 모이면) 연암들, 합당한 모습과 절하는 모습을 여러 동작으로 변형해 움직인다.

해설 (연암들 무대 앞으로 나오면) 연암들, 축원을 잘 마쳤다는 듯 합장을 하며 동작을 멈춘다.

2. 여행의 춤(호곡장론)

해설 (음악 끝나면) 수어통역사가 등장한다.

해설 산 모퉁이를 돌아, 눈 앞에 하늘과 땅만이 우주를 가르는 아득한 공간이 펼쳐진다. “멋진 울음터로구나. 크게 한번 울어 볼 만하다.”

해설 (대사 끝나면) 수어통역사 퇴장한다.

♪ 음악: 중국 바가지 피리인 홀루시, 저음해금, 더블베이스가 함께 연주된다.

해설 (연암들 움직이면) 연암들, 음악에 몸을 싣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치 날갯짓을 하는 새들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인다.

해설 (연암2 리드해서 춤추기 시작하면) 연암들이 삼각 대형으로 서서 한 명씩 돌아가며 리더가 되어 춤을 이끈다.

해설 (연암들 제자리에 머물면) 동작이 점점 더 느려지고 서서히 멈춘다. 무대 곳곳에 앉거나 서서 동작의 여운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3. 말의 춤

해설 (주황빛 고보가 꺼지면) 수어통역사가 등장한다.

해설 우리나라의 말 다루는 방법은 한마디로 위태롭기 짝이 없다. 비록 준마가 있다 해도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해설 (대사 끝나면) 수어통역사 퇴장한다.

♪ 음악: 통소와 장구가 함께 연주된다.

해설 (연암3 등장하면) 연암3이 말의 흥내를 내며 등장한다. 튼튼하고 에너지가 있는 말이다.

해설 (연암1 등장하면) 연암1이 말의 흥내를 내며 등장한다. 너풀너풀 어깨춤을 추는 귀여운 조랑말이다.

해설 (연암2, 무대 위 등장하면) 연암2가 말의 흥내를 내며 등장한다. 기세가 좋은 말이다. 절도 있고 도도하게 움직인다.

해설 (연암들 달리기 시작하면) 세 연암이 모두 무대 위로 뛰어 들어와 말 달리듯 힘차게 달린다.

해설 (연암1,2 앞으면) 말들, 지쳐 쓰러진다.

해설 (연암3, '히히힝' 울면) 수어 통역사가 등장해 연암들의 옆에 선다.

연암3 내가 말이야 나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말이야
 요즘 사람들 말 다루는 꼴이 말 같지 않아서 내가 한마디 하겠단
 말이야 말이야 널 위한 말이야

 내가 등이 없어
 등이 다 내려앉았어

 사람들이 내 등에 올라타려고 안장이라는 것을 등에 올려 이게 너무 무거워,
 그리고 안 맞아, 맞춤이 아니야, 기성품이야, 사이즈가 안 맞아
 그리고 안장을 연결하려고 끈을 묶는데 이 끈도 너무 무겁고, 따가워 쓸려
 사람도 무겁고 안장도 무겁고 따갑고 쓸리고 아프단 말이야 말이 아야했다
 말이야 말이야 말이야 너희들을 위한 말이야

연암2 나도 못 살겠어.

(왜)

 그 안장 위에 사람이 턱 하고 올라타. 그런데, 도포 자락이 왜 이렇게 길고
 넓어. 고삐를 잡고 움직이면 지들 옷끼리 엉키고, 채찍을 휘두르면 중심이
 흔들려서, 내가 다 울렁울렁 거려. 우웩.

연암1 그건 양반이야.

(뭔데)

바로 그 도포를 입고서 말 위에 타는 것이 불편하니까, 따로 또 마부(견마잡이)를 불러요.

(그렇지)

헌데, 그 마부 놈이 한쪽에서 고삐를 잡고 그 고삐를 잡은 쪽에 내 한쪽 눈을 가려서 아주 불편해 죽겠단 말이지.

(완전 알지)

그리고 그 우리 말들의 성격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근데 이 마부 놈이 지만 좋은 길을 걸겠다고 지만 편한 땅을 딛겠다고 나를 자꾸 진흙탕길, 뺄 길, 자갈길, 움푹 패인 길로 자꾸 자꾸 밀어서 굳이 디디게 한단 말이야. 나도 꽃길만 걷고 싶단 말이야. 아, 이 놈을 어떻게 하면 좋지?

연암3

그 마부가 말이지 오른쪽에 선단 말이지 한쪽 눈을 가린단 말이지, 그럼 한쪽 눈으로만 본단 말이지 갈길 봐야지 마부 눈치 살피야지 가야지 봐야지 가지 보지 가보지 넘어진단 말이지

그럼 마부가 채찍을 든단 말이지 나는 긴장이 된단 말이지.

(해설: 수어통역사가 마부처럼 말들을 채찍질한다.)

아! 아! 아!

가장 잔인한게 뭐지? 깡데 또 까는 거란 말이지

왼쪽에 있다고 왼쪽 뺨만 깡단 말이지, 오른손잡이라고 왼쪽 뺨만 깡단 말이지 깡데 또 까고 깡데 또 까고 까고 까고 말이지 말이지 너무 잔인하단 말이지 말이야 말이야 너희들의 위한 말이야

연암2

때리는 건 모두 잔인해.

모두

맞아.

연암2

더 가관은 뭘 줄 알아? 벼슬이 높다고 고삐를 길게 해서 끌고 다니고, 군인들도 군복의 소매가 중의 장삼처럼 넓고. 이게 말이 돼?

연암1

잘못은 지들이 다 해놓고, 채찍질에, 그래놓고선 말에서 떨어졌다고, 또 때리고.

연암2

맞아! 우린 잘못이 없다.

연암3 말은 잘못이 없단 말이지

연암2 이게 다 뭐 때문인줄 알아?

 (뭔데)

연암2 이 모든 게 넓은 소매와 긴 한삼 때문이야! 권위를 더해갈수록, 벼슬이 높아
질수록 소매가 넓어지고 한삼이 더욱더 길어지니 어처구니가 없다.

모두 어처구니가 없다!

연암1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 꼬락서니를 한번 보자!

연암3 그래, 한번 보고 자근자근 씹어보자!

♪ 음악: 통소와 장구가 함께 연주된다.

해설 (연암3 대사 끝나면) 수어통역사들이 말들을 채찍질하고 말들은 맞는 시늉을 하며 퇴장한다. 한 명의 수어통역사가 남는다.

4. 양반 춤

해설 (음악 끝나면)
모든 위태로움이 넓은 소매와 긴 한삼 때문이거늘, 오히려 이러한 위태로움 속에서 편안히
지내려 하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해설 (대사 끝나면) 수어통역사 퇴장한다.

♪ 음악: 장구 장단에 대금, 해금, 피리가 함께 연주된다. 박이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해설 (연암1, 등장하면) 연암1, 소매가 허리까지 오는 흰색 도포를 입은 양반으로 등장한다.

해설 (바로) 가볍게 살랑살랑 팔을 올렸다 내린다. 웃고름을 잡고 빙빙 돌리기도 한다.

해설 (연암2, 등장하면) 연암2, 도포소매가 무릎까지 오는 연한 노란색 도포를 입은 양반으로
등장한다.

해설 (바로) 우아하게 춤을 추며 소맷자락을 자랑한다. 팔을 고상하게 돌리는데 긴 소맷자락이
자꾸 얼굴을 가리며 방해한다.

해설 (연암3, 등장하면) 연암3, 무대 왼쪽에서 위풍당당하게 등장한다. 진한 노란색의 도포를 입었다. 소맷자락이 발끝까지 내려온다.

해설 (연암3, 넘어지면) 연암3이 위엄있게 움직이는데 긴 소맷자락에 걸려 계속 넘어진다.

해설 (일어나면) 연암3, 다른 연암들의 부축을 받으며 퇴장한다.

5. 일야구도하기 :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다.

해설 (음악 끝나면) 수어통역사가 등장한다.

해설 한번 떨어지면 강물이다. 그뎨 물을 땅이라 생각하고, 물을 옷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그렇게 한번 떨어질 각오를 하자 마침내 내 귀에는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넌건만 아무 근심 없이 자리에서 앉았다 누웠다 그야말로 자유자재한 경지였다.

해설 (대사 끝나면) 수어통역사 퇴장한다.

♪ 음악: 타악, 대금, 일렉 기타, 더블베이스가 함께 연주된다. 연주에 맞추어 구음이 나온다.

해설 (바로) 소매가 긴 흰색의 장삼을 입은 연암1이 등장한다. 무대 사방으로 긴 소매를 날리며 격동적으로 움직인다. 마치 무대 위에도 거칠고 화려한 붓질을 하는 듯하다. 소매가 물결처럼 흐르기도 하고 분수처럼 위로 솟구쳤다가 폭포수처럼 내려오기도 한다.

해설 (연암1, 옷 벗으면) 연암1, 천천히 돌며 장삼을 벗는다.

해설 (물결 흐르는 동작하면)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듯 팔을 위아래로 가볍게 들썩이며 걷는다.

해설 (연암1, 앉으면) 무대 중앙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손을 앞뒤로 움직이다 이내 멈추고 고요해진다.

6. 답이 없는 춤 : 상기(象記)

해설 (음악 끝나면) 수어통역사가 등장한다.

해설 우리가 배운 것이라고는 생각이 소·말·닭·개 정도에 미칠 뿐, 용·봉·거북·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돌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이치에 어긋나고 만다.

해설 (대사 끝나면) 수어통역사가 무대 뒤로 이동한다.

해설 두 명의 수어통역사가 무대로 올라온다.

해설 (연암3, 천 열면) 연암3, 천 사이로 고개를 내민다.

연암3 본 것이 적은 자는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를 검다하고 오리를 기준으로 학을 위태롭다고 여긴다.

해설 (연암2, 천 열면) 연암2, 천 사이로 고개를 내민다.

연암2 사물들 각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자기 혼자 화를 낸다. 한 가지 일이라도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모조리 모함하려 드는 습성 때문이다.

해설 (연암1, 천 열면) 연암1, 천 밖으로 나온다.

연암1 나를 한번 보라 백탑에서 벼들과 어울려 술이며 안주며 잔뜩 먹은 날엔 부어있기도 하고, 열하로 가는 길이 고생스러워 부기가 빠지기도 하며,

해설 연암2, 3, 천 밖으로 나온다.

연암3 말 위에서 허둥대느라 물에 빠져 간신히 말꼬리를 잡고 구사일생하기도 하며, 강을 아홉 번 건너는 동안 도를 깨우쳐 위태로움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연암2 나는 본래 일정한 모습이 없거늘, 사람이 눈으로써 먼저 나를 판단한다. 어찌 단지 눈으로만 정했겠는가 보지 않고서 먼저 그 마음으로 정해 버린 것이다.

연암1 고정불변의 나는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놓인 나만 있을 뿐 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건만 보는 사람이 공연히 화를 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

연암3 나는 춤을 춘다. 춤에도 고정불변의 원칙이나 정답은 없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음악이 나와 만나 춤이 된다.

연암2 그렇다, 내 몸이 세상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춤이 된다.

연암1 (눈을 지그시 감고) 지금 나를 이끄는 기운과,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에 몸을 맡겨 답이 없는 춤을 춰보자.

연암3 정해져 있지 않은 춤. 하나의 틀에 고정되지 않은 춤. (연주단을 향해) 음악

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 유 레디?’ ‘부탁해요!’

해설 (‘부탁해요!’ 하면) 수어통역사 퇴장한다.

♪ 음악: 즉흥 음악이 연주된다.

해설 (연암들, 춤추기 시작하면) 장단에 맞춰 각자 추고 싶은 춤을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춘다.

7. 다시, 사이의 춤

해설 (연암1이 ‘이보게’하면) 수어통역사 등장한다.

연암1 이런 저런 춤을 봤는데,
 자네, 길을 알 것 같은가?
연암2 길? 자네는 아는가?
연암3 길이라. (관객을 향해) 자네들은 아는가.
연암1 글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연암2 그런 춤을 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연암3 그럼 공연 다시 해야 하나?
연암1 과거의 춤 같기도 하고 지금의 춤 같기도 하고.
연암2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새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연암3 크지도 작지도 않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흐르지도 멈추지도 않는 춤. 춤이
 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춤. 슬
 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춤.
연암1 아, 이거 큰일이네.
연암2 정말 큰일이다.
연암3 허어, 이거 참.
연암1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어찌지.
연암2 모르면 다시 취박야지.
연암3 결국 다시 공연해야 하네.
연암1 (관객을 향해) 다시 한 번 취 볼까요?
연암2 오직 모를 뿐,
연암3 오직 갈 뿐!

해설 (대사 끝나면) 두 명의 수어통역사 퇴장하고 한 명만 남는다.

♪ 음악: 타악, 대금, 해금, 일렉 기타, 베이스가 함께 연주된다.

해설 사이의 춤.

- 해설 (대사 끝나면) 수어통역사 퇴장한다.
- 해설 (연암들 탈 벗으면) 연암들 탈을 벗어 허공에 건다.
- 해설 (춤추기 시작하면) 연암들, 맨 얼굴로 무대를 누빈다. 몸을 풀 듯 자유롭게 춤을 춘다.
- 해설 (셋이 중앙으로 모이면) 셋이 함께 어깨춤을 추는 동작을 반복한다.
- 해설 (암전되면) 무대가 서서히 어두워진다.
- 해설 (조명 들어오면) 밝은 빛이 무대에 드리워진다.
- 해설 (연암들 걸어오면) 세 명의 연암들, 객석을 향해 인사한다.
- 해설 (연암2, 나오면) 연암2, 무대 앞으로 나와 인사한다.
- 해설 (연암3, 나오면) 연암3, 무대 앞으로 나와 인사한다.
- 해설 (연암1, 나오면) 연암1, 무대 앞으로 나와 인사한다.
- 해설 (연암1, 뒤로 가면) 세 명의 수어통역사 앞으로 나와 인사한다.
- 해설 (인사하면) 수어통역사와 연암들, 나란히 서서 인사한다.
- 해설 악사들을 향해 박수를 보낸다.
- 해설 (연암3 걸어나오면) 문자 통역사를 향해 박수를 보낸다.
- 해설 (객석 위를 향해) 음성 해설사를 향해 박수를 보낸다.
- 해설 다함께 객석을 향해 인사를 한다.
- 해설 (퇴장하면) 무대 왼쪽으로 다같이 퇴장한다.
- 해설 탈꾼들이 퇴장하자 조명이 어두워진다.
- 해설 (연주 끝나면) 연주자들이 퇴장한다.
- 해설 객석이 환해진다.

만드는 사람들

출연 박인선, 이주원, 허창열

연출 신재훈

음악감독 이아람

연주 황민왕(타악), 최인환(베이스), 성시영(피리, 일렉기타), 이일우(피리, 일렉기타),
김용하(해금), 이아람(대금)

무대 & 조명디자인 남경식

무대제작 에스태이지

조명디자인어시스턴트 서승희

조명스텝 이남경 윤혜린 김은빈 유보민

음향디자인 박재식

음향스텝 김진선

의상디자인 임경미

의상 어시스턴트 박수예, 김준석

탈디자인 서공희

무대감독 김상엽, 정인창

제작 피디 - 박용휘, 김은정

기획 & 홍보마케팅 - 티끌

배리어프리

문자해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이시은

수어통역 수어통역협동조합 장진석, 이화정, 김수년

음성해설대본 허선혜

음성해설 윤진성

영상그래픽 이보형

서울남산국악당

총감독 윤성진

상임예술위원 한덕택

국악당 사업부장 김희재

공연기획팀 권효진, 한준섭, 김보라, 최하정, 추도영, 박예은

공연운영팀 김상덕, 노익환, 배경기, 김효원, 이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배리어프리 연극지원사업
